

특집 [이승구 박사 은퇴]

내가 만난 이승구 박사

이상규 | 전 고신대학교 교수, 현, 백석대학교 석좌교수, 교회사학

되돌아보니 내가 이승구 교수를 처음 알게 된 것은 1985년 전후였던 것 같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그가 번역한 책을 통해서 그를 알게 되었다. 그 무렵 필자는 갓 대학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때였으므로 수학(修學)과 수학(授學)에 정진할 때였는데, 열심히 독서하다 보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讀書百遍義自見)는 생각으로 신간 서적을 찾아다닐 때였는데 그 때 접한 책이 게할더스 보수의 '성경신학'(Biblical Theology)이었다. 이 책은 이승구 교수가 번역한 책 중에 내가 접한 첫 번째 책이었다. 원문이 어려워 해독하기 어려워 번역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번역서가 나와서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 때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승구'라는 역자가 26세 혹은 27세의 젊은 신학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영문판으로 450여 쪽에 달하는大作이고 당대 최고의 신학자가 쓴 저작이기에 매우 난해한 저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번역한 점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필

자는 게할더스 보스의 영문판을 가지고 있지만 솔직히 이 책은 지금도 나에게서는 난해하다. 이승구 교수가 이 책을 번역한 때가 20대 후반의 나이였다는 점을 알게 된 것은 훨씬 이후였는데, 그런 나이에 이 책을 번역했다는 사실은 비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을 시작으로 이승구 교수가 번역한 다른 책들, 곧 코넬리우스 반틸의 『개혁신학과 현대사상』, 로버트 웨버의 『기독교 문화관』 등을 읽었고, 아더 홈스의 『기독교 세계관』은 나도 읽었지만 고신대학교의 ‘기독교와 학문’이라는 강좌에서 주교재로도 사용했던 작품이다. 이런 역서를 대하면서 이승구 교수를 알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이승구 교수를 개인적으로 알기 전에 서책으로 오랜 기간 동안 교류했으니 독서상우(讀書尙友)가 되었다고 할까? 생각해 보니 그와의 교류는 거의 40년을 이어왔다.

그러다가 복음주의신학회 혹은 개혁신학회 등 신학관련 학회가 만들어지면서 교류하던 중에 이승구 교수를 알게 되었고 가까이에서 그의 신앙과 인격과 학문을 접하게 되었다. 비록 연령으로는 내가 선배이지만 나는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며,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이승구 교수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위해 보내신 특출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고, 한국교회와 사회, 그리고 한국 신학계에 크게 기여한 신학자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지난 30여 년 이상 그와 교재하며 느낀 몇 가지 소회를 아래의 몇 가지로 정리하면서 그의 은퇴를 기념하고자 한다.

첫째, 이승구 교수는 성실한 학자이다. 그간의 그의 여러 저서와 역서, 그리고 수다한 논문을 보면 그의 성실성을 알 수 있다. 가까이 살지는 않지만 그가 하는 일을 보면 그의 부지런함과 근면한 삶의 태

도를 알 수 있다. 나도 비교적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학술지에 발표되는 그의 연구 결과를 보면 남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노작과 그 결실을 볼 수 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 외에도 여러 학회에서의 회장과 임원으로서의 활동, 방송출연, 출판, 그리고 교회와 교회 기관에서에서의 설교와 강연 등을 보면 그에게는 시간 낭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는 시간을 선용할 정도가 아니라 시간을 구속하고(엡 15:16) 있음이 분명하다. 위대한 사본학자였고 ‘시내산 사본’(Siniaticus)을 발견했던 티센도르프(Tischendorf)는 학구에 전념하여 라틴어로 쓴 일기에서 “잠을 잔다는 것이 불경스러운 일 같았다.”(*Quippe dormire nefas videbatur*)라고 썼는데, 이 말이 이승구 교수의 삶의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지난 40여 년간 이처럼 근면하고 성실하게 연구한 결과로 다작과 수작을 남기게 되었음이 분명하다.

둘째, 이승구 교수는 탁월한 신학자이다. 이 교수님의 글을 보면 그의 신학적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있다. 그는 신학의 여러 분야에 상당한 식견을 갖추었고, 다른 인접 학문에 대한 학제간(interdisciplinary) 연구를 볼 수 있다. 이런 인문학적 바탕이 그의 신학의 견고한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 특히 그의 역서를 보면 그의 다양한 지식과 식견을 읽을 수 있다. 그는 조직신학자 혹은 교의학자이지만 성경신학과 역사신학, 실천신학 분야에도 깊은 식견과 지식을 갖춘 신학자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과 인간, 자연과 역사, 개인과 사회, 그리고 부분과 전체를 아우르고 분석하는 그의 예리한 통찰력을 보면 그의 학문적 깊이를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는 탁월한 신학자라고 생각된다.

셋째, 이승구 교수는 분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이다. 그의 글을 접하거나 그와 의논하거나 대화하면서 느끼는 한 가지는 그는 철저한 개혁주의 신학자라는 점이다. 넓은 의미에서 복음주의자이지만 그는 개혁주의 신학의 신봉자이다. 그는 근본주의, 보수주의, 정통주의, 혹은 광의의 복음주의를 수용하고 또 이런 신학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개혁주의 신학이야말로 가장 성경적인 신학이자 가장 바른 신학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이 신학을 가르치고 변증해 왔다. 이런 점에서 그는 우리 모두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 그는 2007년인가에 코넬리우스 반틸의 전기를 집필했는데, 필자가 생각할 때 이승구 교수는 반틸이 말하는 그 개혁주의 신학을 배웠고, 반틸이 그 시대 개혁주의 신학을 고수하고 변증하기 위해 싸웠던 것처럼 한국에서 반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반틸의 『신앙의 변호』(*The Defense of the Faith*)를 통해 개혁주의 신학은 여러 신학 중의 한 가지 신학이 아니라 다른 신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신학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승구 교수는 반틸의 이런 책들, 특히 『개혁신학과 현대사상』(*The Reformed Pastor & Modern Thought*)을 번역하면서 개혁주의 신학 체계를 수립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넷째, 이승구 교수는 교회를 위한 목회자이다. 이승구 교수는 신학자인 동시에 목회자이다. 비록 지역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는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것이 그의 신학연구, 그리고 직접적으로 교회에서의 설교와 강연이다. 그의 학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고 또 그러해야 한다는 확신으로 신학자의 길을 가고 있다. 그의 논, 저서를 보면 그의 목회적 신학활동을

읽을 수 있고, 기독교 신앙, 특히 개혁주의 신학을 천착하고 변증하려는 노력은, 칼빈이 예시해 준 바처럼, 목회적 활동에 속한다. 특히 이단을 척결하고 건실한 교회를 보호하려는 그의 진지한 활동, 특히 방송에서 이단문제에 대해 신학적 지침을 제시하는 일은 교회를 위한 목회활동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승구 교수는 신앙인격자이다. 이승구 교수를 가까이에서 대해보면 분명한 자기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경청한다. 그는 여러 업적과 성취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 이것이 그의 인격이다. 살다 보면 정작 의식해야 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이승구 교수는 시류를 따라 적당히 처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기독교적 가치를 고수한다. 이런 일관성이 그의 인격이다. 벤자민 위필드는 “개혁주의자는 개혁주의적인 인격의 소유자여야 한다”고 말했는데, 개혁주의자들이 교조주의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승구 교수는 자신이 믿는 개혁주의 신학에 철저하면서도 개혁주의 신앙으로 살려고 노력해온 신학자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더 오래 강단에 남아서 후학들을 가르치면 좋겠지만 정한 법에 따라 비록 은퇴를 하게 되지만, 앞으로 더욱 건강하고 밤잠을 설치며 성경신학을 번역했던 그 20대의 열정으로 동료와 후학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를 기대한다. 그가 남긴 사회, 교회, 역사, 신학에 대한 값진 논·저술들은 다음 세대에도 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런 점에서 로마인들의 격언은 틀리지 않는다. “말은 사라지지만 글을 남는다. *Verba volant Scripta manent*”